

위너스맨, 스테이어 시리즈 3관왕 우뚝

총상금 8억원에 인센티브 1억 따내 국제경주 '코리아컵' 한국대표 출전 서승운 기수 "위너스맨 만난건 축복"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삼관왕 탄생에 이어 '스테이어 시리즈'에서도 4년 만에 3관왕이 탄생했다.

26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열린 '제17회 부산광역시장배'(G II, 1800m)에서 부경 이경희 마주의 위너스맨이 우승을 했다. 2018년 청담도끼 이후 4년 만에 스테이어 시리즈를 싹쓸이한 3관왕이다.

스테이어 시리즈는 한 해의 장거리 최우수마를 선발하는 경주다. '헤럴드경제배', 'YTN배', '부산광역시장배'로 레이아웃을 진행한다. 위너스맨이 헤럴드경제배와 YTN배 우승하면서 이번 부산광역시장배의 트로피까지 따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위너스맨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승을 차지하며 스테이어 시리즈 전 경주를 석권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경주는 서울과 부경의 3세 이상 말 15두가 총 6억 원의 상금을 두고 1800m를 달렸다. 출발대가 열리자 히트예감이 빠른 스타트로 선두를 차지했다. 그 뒤를 위너스맨이 바짝 쫓으며 선행으로 경주를 전개했다. 이 순위는 경주 중반



26일 부산경남공원에서 열린 '제17회 부산광역시장배'(G II, 1800m)에서 부경 이경희 마주의 위너스맨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위너스맨은 이번 승리로 2018년 청담도끼 이후 4년 만에 '스테이어 시리즈' 세 경주를 모두 우승하는 3관왕을 기록하며 국내 장거리 최우수마 자리에 올랐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 4코너에 들어서면서 호흡이 바뀌었다. 히트예감의 발걸음이 더디지는 순간 위너스맨이 1위로 나섰고 이후 순조롭게 격차를 벌리며 결국 3마신 차의 압승을 했다. 경주 기록은 1분 54초 3.

2위는 심장의고동, 3위는 석세스마초, 4위는 킹오브더매치, 5위는 히트예감이 차지했다. 배당인기 1위였던 행복왕자

는 9위, 왕년의 장거리 강자 청담도끼와 불루치퍼는 각각 14위와 15위에 머물렀다.

위너스맨은 쟁쟁한 장거리 강자들 사이에서 우승함과 동시에 스테이어 시리즈 3관왕에 등극해 장거리 국산마의 자존심을 세웠다. 또한 5위까지 입상마 중 4위 킹오브더매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산마라는 사실은 앞으로 한국경마 발전

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위너스맨에 기승한 서승운 기수는 "위너스맨이 스테이어 대표마가 되어 영광스럽고, 이런 말을 만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출발번호도 좋았고 경주전 개도 생각대로 됐다. 경주 호흡이 조금 빨랐는데 말이 잘 버텨준 것 같아 고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최기흥 조교사도 "작전이 생각대로 됐다. 물 흐르는 듯한, 위너스맨을 위한 경주였다. 위너스맨이 통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위너스맨이 스테이어시리즈를 통해 따낸 상금은 총 8억 원 가량이며 여기에 스테이어 시리즈 승리 인센티브 1억 원을 추가로 가져간다. 아울러 시리즈 우승마 특전으로 9월 예정인 국제초청경주 '코리아컵'에 한국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위너스맨은 이제 겨우 4세로 좋은 체격과 주족, 스피드, 지구력을 모두 갖춰 올해 '그랑프리'(G I)까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경주는 KBSN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영상은 유튜브 한국마사회 경마방송 KRBC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위너스맨과 서승운 기수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기수에 장착한 자키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여름밤 축제' 야간경마가 온다

오늘부터 8월28일까지 매주 금·토 시행



야간경마를 시행한다.

올해 야간경마는 7월1일부터 8월28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에 열린다. 금요일에는 부산경남과 제주 경마공원에서 야간경주를 진행한다. 토요일에는 서울과 부산경남 경마공원(서울 휴장 기간 한정)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 마지막 경주 출발시각은 밤 9시다. 일요일은 기존처럼 서울, 부산경남 경주를 주간 경마로 시행한다. 고객 입장시간도 바뀐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낮 12시30분부터 입장을 시작하고, 일요일은 오전 9시30분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하계 휴식기 기간 경마장별로 휴장기간을 운영한다. 제주 경마공원은 7월 마지막 주, 그 다음 주인 8월 첫째 주는 서울 경마공원이 휴장한다. 8월 둘째 주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휴장을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윤각현 신임 대표이사 취임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대표이사 임용강 수여식(오른쪽)과 정기한 한국마사회장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의 대표이사로 윤각현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윤 대표이사는 한국마사회 경마처장, 감사실장, 제주지역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말산업 전문 경영자다. 한국

마사회시설관리는 2019년 한국마사회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1400여 명의 미화, 경비, 시설관리 등 용역직원들을 2020년 전환 채용하며 설립한 회사다.

마사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 진행



한국마사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2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경마공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및 임

직원 11명과 한국마사회 회장, 주요 임직원 9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측은 말산업과 축산업의 당면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마사회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축산발전기금 출연에도 차질이 발생한 점을 들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도현 기자

"한국경마를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조교사 5인 은퇴식·기념경주

지용철 조교사 유일하게 1만번 출전 김점오 조교사는 87년 데뷔 산 역사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25일 서울경마공원 야외 시상대에서 김점오, 박대홍, 서정하, 임봉춘, 지용철 조교사의 은퇴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조교사 경력만 짧게는 18년부터 길게는 36년까지 인생 대부분을 경마에 몸담았다. 특히 지용철, 김점오 조교사는 각각 1986년, 1987년에 데뷔해 똑똑 경마장(1954~1989) 시절부터 조교사 경력을 쌓아온 한국경마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명의 업적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의미에서 25일 경주 중 서울 제1경주부터 제5경주까지는 조교사 은퇴를 기념하는 경주로 명칭을 부여해 시행했다.

●김점오 조교사(17조, 데뷔 1987년, 8691전 792승)

4번의 도전 끝에 기수 양성소에 입소해 기수 후보생 5기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기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1987년 7월에 조교사로 데뷔해 경마 인생이 올해로 49년째다. '코리아더비' 1회 대회에서 우승예감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다.

●박대홍 조교사(18조, 데뷔 1997년, 7124전 1016승)

1월 한국경마 역대 세 번째로 1000승을 거두었다. 1년 만에 퇴사를 했다가 정지은 조교사와의 인연으로 다시 경마장 생활을 시작했고, 경마장은 어느덧 40년 넘게 보낸 곳이 되었다.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명문가문. 2007년, 2008년 대통령배 2연패를 이룬 말이다.

●서정하 조교사(43조, 데뷔 2004년, 2852전 162승)

어릴 때 승마선수로 생활하다가 1985년 한국마사회 승마교관으로 지원해 합격했다. 기수후보생 교육을 맡아 일하며 경마 커리어의 발판을 쌓았다. 그 덕분에 조교사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2004년에 조교사로 개업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은 2009년 플로리다삭스와 첫 대상경주 우승을 했을 때라고 한다.

●임봉춘 조교사(21조, 데뷔 2002년, 5306전 425승)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조카의 추천으로 오게 된 것이 경마장이었다. 2002년 조교사로 개업했지만, 첫 3년간은 성적이 좋지 않아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이 일을 후회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경주마 내추럴나



은퇴식을 진행한 서정하, 김점오, 지용철, 임봉춘, 박대홍 조교사(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인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우승기록을 쌓기 시작했다.

●지용철 조교사(49조, 데뷔 1986년, 1만2509전 933승)

역대 최초 1만 번 출전이라는 기록 보유자다. 똑똑 시절부터 1973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를 그만두고 말관리사로 입사하면서 경마와 인연을 맺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2013년도 최고의 명마로 뽑힌 지금이순간이다. 특히 그는 지금이순간의 모마 솔마루, 아들 심장의고동까지 3대를 모두 훈련시켰다. 김재범 기자

골프

박민지·임희정 쉬는 맥콜·모나파크 오픈…유해란에 주목하라

오늘부터 사흘간 평창 버치힐GC 개최 유해란 "공격적인 플레이로 우승 도전" 디펜딩 챔피언 김해림도 V 의욕 밝혀

시즌 상금 1·2위는 휴식을 택했다. 그 빈자리는 누가 대신할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맥콜·모나파크 오픈(총상금 8억 원)이 7월 1일부터 사흘간 강원 평창군 버치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다.

올 시즌 3승을 거두며 대상 포인트와 상금 부문에서 1위에 올라있는 박민지(24), 한국여자오픈 챔피언이자 상금 2위인 임희정(22)이 휴식차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가운데 가장 눈길이 가는 선수는 대상 2위 유해란(21)이다. 시즌 3번째 대회였던 빅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유해란은 현재 상금 4위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상위권에 랭



유해란

크돼 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유해란은 "최근 60대 타수를 많이 못 쳐서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난 주 최종라운드 때 올해 느꼈던 샷감 중 제일 좋았다.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버치힐 골프클럽은 출전할 때마다 성적이 좋아서 선호하는 코스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해서 높은 순위를 노려보겠

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김해림(33)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대회를 나가면 관심이 많이 받고 집중이 더 잘 된다. 특히 팬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에너지를 더 많이 얻는 것 같다"며 "의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해림과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을 기록한 이가영(23)은 "작년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 그때의 생각은 잊고 새로운 대회라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하겠다"며 "최근 샷감이 상당히 좋은 상태. 퍼트만 잘 따라주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대회 최종라운드에서만 8타를 줄이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줬던 이가영은 한국여자오픈에서 공동 4위, 지난해 열렸던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공동 8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안정적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김태훈, 부산오픈 첫 날 공동 1위 '산뜻한 출발'

14번홀서 샷이글 치고 4언더파 67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통산 4승의 주인공 김태훈(37)이 모처럼 산뜻하게 출발했다. 30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아시아드CC 벨리·레이크코스(파71)에서 열린 2022시즌 코리아투어 10번째 대회 '아시아드CC 부산오픈'(총상금 8억 원·우승상금 1억6000만 원) 1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박성국(34), 이태희(38)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랐다.

13번(파3) 홀까지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던 김태훈은 14번(파4) 홀에서 97m 남기고 친 세컨 샷이 그린 경사를 타고 옆으로 흘러 홀컵에 빨려 들어가면서 단숨에 2타를 줄였다. 샷이글로 분위기를 탄 그는 15번(파5) 홀에서 144m 거리에서 친 세 번째 샷을 홀컵 2m에 붙이고, 16번(파3) 홀에서는 6m 거리의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는 등 잇달아 버디를 잡아 3개 홀에서 4타를 줄이



김태훈

고 공동 선두로 뛰어올랐다. 2020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서 통산 4승을 달성하며 그 해 대상과 상금왕을 석권했던 김태훈은 지난해 3위가 시즌 최고 성적일 정도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번 시즌 초에도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6월 들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오픈에서 공동 3위에 오른 뒤 지난주 한국오픈에서는 공동 28위에 자리했다. 김도현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